• 1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①	*2*	⑤	*3*	①	*4*	④	*5*	⑤
6	②	*7*	①	*8*	④	*9*	①	*10*	④
11	③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⑤	*17*	③	*18*	②	*19*	②	*20*	⑤
21	③	*22*	①	*23*	②	*24*	④	*25*	①
26	③	*27*	⑤	*28*	⑤	*29*	②	*30*	⑤
31	④	*32*	④	*33*	⑤	*34*	④	*35*	①
36	①	*37*	③	*38*	③	*39*	①	*40*	⑤
41	②	*42*	④	*43*	①	*44*	②	*45*	①
46	④	*47*	①	*48*	⑤	*49*	③	*50*	①
51	③	*52*	⑤	*53*	④	*54*	⑤	*55*	②
56	③	*57*	③	*58*	③	*59*	①	*60*	③

해 설

1. [ ] 들려준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선생님은 풍경화의 구도 중에서 대각선 구도, 수평선 구도, 수직선 구도, 사선 구도, 호선 구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①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원 모양을 이루며 서 있으므로 원형 구도에 해당하는 그림이다. 선생님이 원형 구도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없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오답풀이] ② 사선 구도에 해당한다. ③ 호선 구도에 해당한다. ④ 수평선 구도에 해당한다. ⑤ 대각선 구도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들려준 강연의 논지 전개 방향(또는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들려준 강연은 '한류'라는 사회 현상을 문화 소비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문화 소비의 중독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한류열풍의 문화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한류를 통해 우리의 이미지와 생활양식을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다는 한류열풍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대화의 주제를 파악한다.
남자는 블로그를 '인터넷이 낳은 새로운 미디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블로그를 '그저 개인적인 경험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은 블로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4. [출제의도]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뉴스를 제작한 의도를 파악한다.
기자는 먼저 산세비에리아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촉매 시공업자들의 과장된 말만 듣고 광촉매 시공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뉴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출제의도] 토론 내용을 듣고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한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남자의 말과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투표율을 높여야죠.'라는 여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 모두 투표율을 높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토론자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파악한다.
남자가 인터넷 투표를 위한 인력과 비용,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의 절감이라는 인터넷 투표의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투표 과정이나 결과의 조작과 같은 인터넷 투표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사진을 보고 적절한 내용을 연상한다.
짐이 가득 쌓인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에서 'ㄱ'을 연상할 수 있으며, 달려가는 자동차의 모습에서 'ㄴ'을 연상할 수 있다. 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는 앞만 보고 운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8. [출제의도]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주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므로, ③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할 때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④의 '환경단체의 인식 전환'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촉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다양한 자료 활용하여 글을 쓸 계획을 세운다.
[자료3]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쇼핑중독자가 된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 쇼핑중독으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는 내용은 [자료3]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글을 쓴다.
유추는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④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자의 태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추로 볼 수 있다. 또 마지막 문장에서는 수사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여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다'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②는 '나'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③은 '가'와 '나'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⑤는 '다'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작성된 개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한다.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 양상'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나 구체적 사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가'에 대해 다루는 '개인 정보 유출의 원인' 항목에는 어울리지 않다.

12. [출제의도] 잘못된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는 '음식을 먹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데 ⓑ를 ②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를 삭제해야 한다.

13. [출제의도] 사례를 바탕으로 띄어쓰기 원리를 추론하고 이를 확대 적용한다.
㉡'쏜살같이'의 '같이'는 체언 뒤에 붙여 썼다. 그런데 ②의 '부모님과 같이'에 쓰인 '같이'는 체언이 아니라 '과'라는 조사 뒤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은 올바른 추리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쏜살같이'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②의 '부모님과 같이'에 쓰인 '같이'는 '과'라는 조사 뒤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4. [출제의도] 문맥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여 글을 쓴다.
'각별하다'는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의 의미로 '각별한 사이/각별한 주의/그는 사진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다.'의 용례로 쓰인다. '재주'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로는 '특출하다'와 '탁월하다'가 적절하다.

[15~19] 이청준, <잔인한 도시>

15. [출제의도] 주제와 관련지어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마지막 반 해분만이라도 내 그 노역의 품삯을 한사코 주머니 속에 깊이 아껴 뒀던 게' 등의 구절에서 '사내'가 귀향을 준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내'의 얼굴이 행복하게 빛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준비'와 후자의 '행복'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사내'의 행복은 잔혹한 도시를 떠나 '새'와 함께 따스한 대숲이 있는 고향으로 떠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서 '사내'와 '젊은이'의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젊은이'는 새의 속깃을 잘라내고 비밀 집합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사내'는 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는 점 등을 통해, 두 대립적 성격의 인물이 이 작품의 기본적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속깃을 잘라낸 흔적, 비밀 집합사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듯 이 글의 전반적 분위기는 비정함, 잔혹함에 있다. 그러나 '새'를 두고 하는 '사내'의 혼잣말과 그에 반응하는 '새'의 움직임 등이 묘사된 부분에서는 이러한 잔혹함과 대조되는 인간적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16. [출제의도] 소재가 갖는 상징성에 근거하여 작품의 의미를 이해한다.
'젊은이'는 비밀 집합사에서 언제든 필요한 만큼의 새를 꺼내온다. 이는 '젊은이'에 의해 속깃이 잘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새들은 자유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구속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존재의 성격과 관련짓는다면 헤어날 수 없는 굴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사내'와 '새'의 관계, '사내'의 혼잣말과 그에 반응하는 '새'의 몸짓, '사내'가 혼잣말에 자주 구사되고 있는 '우리'라는 말 등에서 '새'와 '사내'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서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장면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한다.
'사내'와 '새'의 공감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에 '그 사내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구절이 나온다. 지문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그 기다림은 따스한 것, 인간적인 것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의 속깃이 잘려나간 흔적을 통해 젊은이의 비밀 집합사의 비밀을 알게 된 '사내'는 잔혹한 도시를 떠나 남쪽을 향한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나서게 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가위 같은 물건으로 속깃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가위'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물건이다. '속깃'은 여리고 부드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도시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8.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은 도시의 겨울 추위와 대비된다. 따라서 여기서 '그만이다'에는 '따듯하고 푸근하다, 추위를 이겨내기에 넉넉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의미를 가진 ②의 '그만'과 그 의미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주제와 관련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다.
<보기>에서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는 등의 구절로 보아, '금붕어'는 '어항'에 갇혀 있는 것이며, 그곳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공간이다. '금붕어'는 '꿈이라 가르쳐진' 바다를 생각한다. '어항' 속의 '떡가루와 흰손'보다는 '상어에게 쫓겨다니'더라도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도시'는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공간이고, '사내'는 그곳을 벗어나 '새'와 함께 '대숲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난다. '사내'는 '황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20~23] 박희영, <철학적 세계로의 입문>

20. [출제의도] 글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단락에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통해 이데아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고 또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간의 예를 들고 있다. 또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셋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넷째 단락의 첫문장에서 현상계의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빚어질 수 있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가설'에 해당하는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증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 글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설명을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올바른 이해와, 플라톤 철학이 학문적 인식 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의의를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③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플라톤 철학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② 플라톤의 초기 작품에서와 원숙

기 작품에서의 이데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 하기는 어렵다. ④ 보편성과 개별성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물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글의 핵심이라 하기는 어렵다.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22. [ ]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보기>는 올바른 사랑은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하여 피안의 아름다움에 도달하여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글의 내용과 연관지으면,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하는 것은 개별자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저편의 아름다움에 도달하여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은 이데아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기>는 이데아에 대한 이해가 결국 개별자(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밝혀 개별자와 이데아가 결국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보기>에 따르면 자기 함양은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이다. ③ <보기>는 이데아가 결국은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되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보기>는 사랑에 관해 올바르게 도달하거나 인도자에 의해 인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인도자의 도움에 의해 성취된다고 단정하는 진술은 없으며, 스스로의 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기 함양의 아름다움을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한 한 단계로 언급하고 있다. ⑤ 지상적 아름다움은 육체적 사랑과, 저편(피안)의 아름다움은 정신적 사랑과 관련지을 수 있겠으나 <보기>는 저편의 아름다움이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육체적이고 세속적 사랑과 정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인식하기 위해 대상을 고정화하여 이데아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속한 문장 전체를 보면 이데아에 대한 규정은 대상을 이성적 차원에서 ㉡과 같이 인식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했으므로 ㉠은 ㉡이 이루어지기 위한 출발점, 즉 ㉡처럼 인식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4~28] 앙드레 오를레앙, <금융시장은 무엇에 필요한가?>

24. [출제의도] 논지 전개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기본 모델'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증권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즉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주가 변화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이한 관점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글쓴이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기본 모델은 주가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주관성을 중시하는 자기참조 모델은 주가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임을 보여준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다르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 것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본 모델의 관점은 주식의 가격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가 없다. '증권시장이 내놓은 분석'은 사람들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음을 알게 하므로 자기참조 모델의 관점에서 제시한 분석임을 알 수 있다.

27.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가격이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은 "가격은 여론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므로 ㉠은 "가격이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향배(向背)'는 '좇는 것과 등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추세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는 반응.
②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③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④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28. [출제의도]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리한다.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여론을 모방하여 주식을 산다고 본다. 그 모방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수의 비전'인 '묵계'에 의해 인정된다. 증권시장은 이러한 묵계를 조성하고 유지해가면서 경제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따라서 증권시장은 '투자자들이 묵계를 통해 자본의 가격을 산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29~34] (가)유치환, <거제도 둔덕골> / (나)이성부, <무등산> / (다)박인로, <누항사>

29. [출제의도] 작품들의 해석을 통해 화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가)의 화자는 조상들이 살아 온 공간으로 돌아와 그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를 지켜가면서 살다 죽으리라고 진술한다. (다)의 화자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에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

(가) 시에서 '큰집 젊은 증손'은 둔덕골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큰집 젊은 증손'은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려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 인물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형상화된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이 시의 화자를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삶의 근원적 공간으로서 '둔덕골'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서 살겠다는 태도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1. [출제의도] 시어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감상한다.

[A]에 나타난 '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 대상으로 심상화(心象化) 되어 있다. 이러한 인내와 수용의 태도는 '들판'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머리를 숙이는 오곡백과, 말이 없는 풀잎들이 존재하는 들판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언제나 누워서 우리를 걷게 할 뿐,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모순 어법을 통한 시적 진술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다.

ⓓ에는 '태어남'과 '죽음'이 '산'이라는 대상에 서로 동일한 시점으로 나타나 있다.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동일 대상에게 시간적 간극이 없는 동일 시점 위에서는 양립할 수 없다. 즉 태어남이 죽음일 수는 없는 것이다.

33. [출제의도] 작품들을 비교하여 시구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한다.

㉠은 화자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곳이다. ㉡은 화자가 '명월청풍' 즉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친구로 삼아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곳이다. 따라서 ㉠과 ㉡ 모두 화자와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한다.

화자는 봄에 해야 할 밭갈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우울한 감정을 느끼다가 결국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꿈꾸어 오던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5~39] 레프 블라소프 외, <변화무쌍한 물의 성질>

35.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이 글은 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특성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해 보인 후 그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즉, 분자들의 강한 결합력으로 인해 물의 끓는점과 비열이 매우 높다는 점과 용해력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런 강한 결합력과 용해력은 물 분자들이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물의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생물체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다.

[가] 부분의 설명에 따르면, 산소족에 속하는 원자들의 수소화합물은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들의 원자량의 순서대로 끓는점이 높아진다. 그러나 물은 산소족 원소들 중 원자량이 가장 적은 산소의 수소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끓는점이 매우 높아서, 황의 수소화합물인 황화수소보다도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추리하면, 물의 끓는점은 황화수소의 끓는점보다 높고 황화수소는 셀레늄화수소보다 끓는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는 원소들의 원자량에 따라 끓는점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러나 물은 그런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끓는점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높다는 설명 (특히 황화수소보다 높다는 설명)을 참조할 때 적절하지 않은 그래프이다.

37. [출제의도] 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다.

셋째 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물분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으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물분자들은 강한 결합력을 바탕으로 집단을 이루고 있다. <보기>의 '$(H_2O)n$'은 바로 물분자들의 이런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H_2O)n$'에서 'n'은 여러 개의 분자들을, '( )'는 그들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물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자식이 '$(H_2O)n$'라는 말은 물분자들의 강한 결합력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물분자들이 강한 용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물분자들끼리의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극성 물질과 결합하는 힘이 강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⑤ 물분자 자체를 나타내는 분자식은 'H_2O'이다. 이를 괄호로 묶고, 정수를 나타내는 'n'을 뒤에 붙인 것은 물분자가 복수로 뭉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38. [출제의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은 물분자가 극성 공유 결합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런 결합을 한 분자의 경우 분자의 한쪽 끝은 양전하를 띠고 다른 쪽 끝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분자간의 결합력이 강하고 다른 극성 물질과 쉽게 결합한다. 이는 상반된 전하를 가진 부분이 쉽게 결합하는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막대자석의 경우에도 한쪽은 양의 극성을 띠고 다른 쪽은 음의 극성을 띠기 때문에, 상반된 극끼리 강하게 결합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극성을 지닌 다른 물질을 끌어당겨 결합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보조 자료로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의 '태양전지'와 ②의 '발광 다이오드', ④의 '발전기' 등은 어떤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들이다.

39.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것은 물분자들의 결합력이 강하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둘째 문단의 끝 부분에서 물의 비열이 대단히 높다고 한 것과 물의 항상성이 큰 덕분에 생물체와 지구가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물은 겨울이 되면서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산소는 산소족 원소들 중에서 원자량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소화합물인 물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물의 표면장력이 큰 것은 물과 공기 사이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물 표면의 물분자들끼리는 강한 결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0~44] 이익섭, <한글 맞춤법의 원리>

40. [출제의도]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

.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문자와 의미는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된 맞춤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다양한 표기법이 공존했다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여러 형태로 표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와 의미 사이의 필연성과는 거리가 멀다.

41. [출제의도]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자와 말소리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문에 제시된 맞춤법 원리의 미비점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전에 정해진 맞춤법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 '소리대로'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렇게 정해진 표기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와 괴리를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개정은 이러한 괴리를 반영해야 한다.

42. [출제의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맞춤법의 원칙 중 '소리대로'의 원칙만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쓸 때, 본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논거를 찾는 문제이다. <보기>의 주장은 맞춤법이 '소리대로'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대로'뿐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도 필요하다는 논거를 찾으면 된다. "'소리대로'보다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법이 시각적으로 뜻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므로 <보기>를 반박하는 논거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사례 분석을 통해 원리를 추론한다.

본문에 설명된 맞춤법의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소리대로'의 원리는 개정하는 과정에 '현재'의 말의 발음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는 의미에 따른 단어의 고정된 형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때, ㉠과 ㉢은 '현재'의 발음을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은 의미에 따른 단어의 고정된 형태를 밝히는 쪽으로 개정했다.

44. [출제의도] 원리에 근거하여 사례를 분석한다.

접미사 '-시키다'의 기능 및 활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시키다'는 남이 어떤 동작을 하게 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하다'를 써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시키다'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다'를 써도 자연스러운데, '-시키다'를 쓴 사례를 찾으면 된다. ②의 '금지시키는'은 '금지하는'으로도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데, '-시키다'를 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45~48] 백석, <입춘>

45.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이 글에는 체험을 바탕으로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와 성인이 된 현재의 우울한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나'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나 이는 고향에서 행복하게 놀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글의 첫 번째 단락에서 5-11줄까지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일반적으로 봄은 밝고 가벼운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봄은 오히려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⑤ 작가는 유년 시절 자신을 '소년'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유년 시절의 정서를 잃어버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46. [출제의도] 서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부분이 가지는 기능과 의미를 파악한다.

고향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자가 불에 타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이야기는 위에서 서술된 '오고 가는 절기며 들고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하게 얽히었는가.'와 관련되어 등장한다.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처럼 인간들의 생활 역시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은 신비롭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고향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돈과 목숨과 생활과 경우와 운수 같은 것에 대해서 컴컴하니 분명치 못한 생각들'을 했으리라고 '나'가 짐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7. [출제의도] 발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공감각적인 표현 중에서 시각을 후각화한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봄비'의 시각적 심상과 '풋나물 내음새'의 후각적 심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①의 '김냄새 나는 비'에서도 '비'의 시각적 심상이 '김냄새'의 후각적 심상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출제의도] 주요 소재의 기능을 대비하여 파악한다.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는 성인이 된 '나'의 겨울과 관련되고, ⓑ'썰매'는 어린 시절 '소년'의 겨울과 관련된다. 어린 시절의 '소년'은 고향에서 한겨울에 썰매를 타고 즐겁게 지내면서 들짐승에게서도 정다움을 느꼈기에 겨울이 가면 서글픔을 느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나'는 겨울이 지나가도 서글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겨울의 흥취도 없이 무감각하게 공일 무휴의 오피스에 출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현재의 '나'는 도회지에서 무감각한 채 바쁘게 살아가면서 고향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나'는 돌아갈 수 없는 행복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직장 생활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현재에 대해서는 무감각함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재의 무감각함은 어린 시절의 회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49~52] 서우석, 소리의 의미

49. [출제의도] 주요 정보를 확인하며 글을 이해한다.

셋째 문단에서 음악적 체계가 논리적 체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고대 문명에서 생겨난 질료적 상징이 발전하여 음악에 남긴 상징적 흔적들 중의 하나이다.

[오답풀이] ④ 넷째 문단에 의하면 음악은 가볍지만 형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춤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중력의 속박에 얽매여 있다. 그러기에 두 장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

50. [출제의도] 내용 전개와 관련하여 서술 전략을 파악한다.

둘째, 셋째 문단에서 주술성과 관련된 개념의 변화 과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가설의 설정 혹은 그것의 입증 과정을 찾을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넷째 문단에서는 음악(소리)과 춤의 기본적 속성과 그것의 결합을 비유적 진술과 대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먼저 소리(음악)의 '비물질성'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전제로 그것이 인간의 삶과 문화에 남긴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51. [출제의도] 주요 정보나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자료를 해석한다.

<보기>의 설화에는 현실과 비현실이 혼재되어 있다. 정적의 제거와 그 위기 탈출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음악이 불을 켜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은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환상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이는 특정한 라가가 특정한 실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상징적 사고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라가 디팍과 라가 말라르는 각각 불과 비를 대신하고 있고, 그것이 이야기 전개와 마무리에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설화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지문에서 설명한 음악 또는 소리에 투영된 상징적 사고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5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를 추리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소리가 가지는 상징성은 그런 소리의 진원이 된 물질에 대한 주술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질료적 상징이 생겨나게 된다. 풀피리의 소리는 그것이 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곡식을 자라게 한다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⑤는 호랑이 발톱이라는 물질(재료)을 지니면 호랑이와 같은 용맹이 생겨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주술적 믿음과 관련이 있다.

[53~56] 김청, <종이 · 판지 이야기>

5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리한다.

본문의 3단락에 전통 한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백제인 잿물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다. 콩대, 짚, 메밀대 등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다. 그러나 표백력은 강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한지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물에 대한 서술은 셋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전통 기술과 환경, 전 제조 공정에서 화학 약품 사용이 없다.

5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 이해한다.

⑤는 종이를 말리는 과정으로 본문에는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① 잿물 씻기, ② 닥 삶기, ③ 닥죽 만들기, ④ 종이뜨기

5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뜨다'는 물에 잘 풀린 닥섬유를 발을 이용하여 종이를 '뜨다'의 의미이다. 김은 채취하여 물로 씻은 뒤, 물에 풀어서 발로 뜬다.

[오답풀이] ① 메주가 뜨다 : 발효되다 ③ 조끼를 뜨다 : 뜨개질을 하다 ④ 탁본을 뜨다 : 먹물로 비석 따위에 새겨진 무늬, 문자를 찍어 내다

56. [출제의도]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례를 파악한다.

도침 기술은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에 얇게 풀칠을 한 후 두들겨서 종이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쇠를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을 반복하면 쇠의 강도가 높아진다.

[오답풀이] ① 물질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하여 다른 성질을 강화함. ⑤ 두 물질을 결합하여 두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킴.

[57~60] 작자미상, <장화홍련전>

57. [출제의도] 이야기 전개와 관련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리한다.

홍련이 집을 떠날 결심을 하는 것은 이미 장쇠로부터 장화의 전후사를 알게 된 직후이며, 홍련이 유서를 쓰는 당일 저녁에는 청조가 아직 날아오지 않았다.

58. [출제의도] 말하기에 나타난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와 [나] 모두 '명천'이라는 초월적 대상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으며, 어려서 일찍 생모를 잃고 슬퍼하여 지내다 계모로 인해 처하게 된 불행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에서의 앞부분에서 각각 홍련과 장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가]의 '계모를 얻으매 성품이 불측하여 박대 심한지라', '계모의 독수'라는 대목에서 [나]의 '야속할사 흉녀로다', '불측할사 흉녀로다'라는 대목에서 모두 계모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후세를 기약하는 것은 [나]에서만 드러나 있다.

59. [출제의도] 판본 비교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한다.

<보기>에 제시된 활자본 장화홍련전의 관련 대목에서 '사람이 차마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건마는', '가련하도다! ~'의 대목은 지문으로 제시된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서술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0. [출제의도] 제시된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의 앞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계모의 인물형이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는 계모형 가정 소설의 등장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게 된다. 따라서 작품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계모가 서사적으로, 즉 소설에서 주목받게 된 것과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을 관련짓고 있는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